

독주채비 KIA “막을자 누구”



지난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와 KIA의 경기에서 승리한 KIA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중 9위 kt·8위 한화 초대 홈 6연전 ‘승수쌍기’ 호기

‘팀타율 1위’ 막강화력에 ‘주전 거포’ 나성범 복귀 천군만마 우승 가는 길 ‘밤심은 금물’, 어린이날 류현진과 빅매치 주목



올 시즌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하위팀들을 상대로 승수를 쌓을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KIA는 이번주 9위 kt와 8위 한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본격적인 독주 체제를 굳힌다는 복안이다.

지난주 성적 4승2패로 마무리한 KIA는 2위 NC와 2게임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권 팀들과 연속 경기를 갖게 된 점은 KIA로선 확실한 선두 굳히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위권과의 대결에서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자칫 연패할 경우 선두 수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IA는 kt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2승1패로 앞서있다. 한화에게도 원정에서 3승(무패)을 챙기는 등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준우승팀 kt는 시즌 초반 마운드의 부진과 부상자 속출로 하위권에 처져있다.

지난주 한화와의 주중 3연전을 스윙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SSG와의 주말 3연전엔 1승을 올리는데 그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했다. 다만 마운드에선 벤자민이 최근 3연승을 올리며, 컨디션을 크게 끌어올린 상태다.

KIA와의 첫 경기인 30일에도 벤자민이 선발 투수로 예고됐다. KIA는 윤영철이 마운드에 오른다.

주말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류현진의 한화와 3연전이 펼쳐진다.

3연전 마지막 경기인 5일(어린이날)에는 류현진이 선발로 출전해 KIA 타선을 상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는 이날 초승달구하며 선두에 있었지만, 어느새 8위(12승18패)까지 떨어졌다.

지난주도 1승5패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며, 좀처럼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KIA는 29일 현재 10개 구단 중 팀 타율(0.298)이 가장 높고, 타점 1위(173점), 팀 득점 1위(183점)이다.

평균자책점(3.75)은 2위, 최다 홈런(26개), 최

프로야구 팀별 순위 (29일 현재)

| 순위 | 팀명 | 승 | 패 | 무 | 승률 | 게임차 |
|----|-----|----|----|---|-------|------|
| 1 | KIA | 21 | 9 | 0 | 0.700 | 0 |
| 2 | NC | 19 | 11 | 0 | 0.633 | 2 |
| 3 | 삼성 | 18 | 12 | 1 | 0.600 | 3 |
| 4 | SSG | 17 | 13 | 1 | 0.567 | 4 |
| 5 | LG | 16 | 14 | 2 | 0.533 | 5 |
| 6 | 두산 | 15 | 17 | 0 | 0.469 | 7 |
| 7 | 키움 | 13 | 16 | 0 | 0.448 | 7.5 |
| 8 | 한화 | 12 | 18 | 0 | 0.400 | 9 |
| 9 | kt | 11 | 20 | 1 | 0.355 | 10.5 |
| 10 | 롯데 | 8 | 20 | 1 | 0.286 | 12 |

다 세이브(13개)를 기록하며 완벽한 투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난주 키움과의 주중 3연전에서는 정해영의 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양현종의 통산 170승, 김도영의 월간 최고 10홈런·10도루 달성 등 기록 행진도 이어졌다.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주전 거포 나성범도 복귀하면서 KIA의 경기력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단일리그를 운영하는 KBO리그에서는 4-5월 초반 성적에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KIA가 이번주 하위권과의 6연전을 통해 5월에도 대권을 향한 순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주홍철 기자

“광주 테니스발전 헌신”

제12대 광주시테니스협회장에 김광희씨 당선

김광희(67) 전 광주시테니스협회 부회장이 제12대 광주시테니스협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내 협회 사무실에서 회장 보궐선거에 단독 후보로 등록한 김광희 후보에 대한 적격심사를 벌여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 당선증을 교부했다. (사진)

김광희 신임회장은 당선증을 받은 이날부터 2028년 1월 정기 대의원총회 전날까지 5년 동안 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신임회장은 ▲동호인의 화합과 통합을 통해 늘 소통하는 협회 ▲열악하고 부족한 시설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동호인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엘리트선수 육성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 등을 공약했다.

김 신임회장은 “대학시절 동아리 활



동을 시작으로 테니스에 입문한 뒤 협회의 다양한 직책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테니스 발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광주 테니스인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국민생활체육 광주시 테니스 연합회 총무이사, 사무차장, 사무국장, 부회장을 역임했고, 제11대 광주시테니스협회 부회장을 맡아 광주 테니스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박희중 기자



서석중 감독, 춘계대회 단체전 준우승

광주 서석중 감독부가 제66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서석중은 지난 26-28일 경북 청송군 민체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결승전에서 인천 부원중과 팽팽한 접전 끝에 2-2(포인트45)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석중은 준결승서 대구 동평중을 상대로 매치스코어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선봉 허경도(1년)가 1-1로

비긴 뒤 2위 김태현(2년)과 중견 윤찬희(2년)가 1-0으로 이기며 앞섰지만 부장 옥하준(2년)이 1-2로 패한 뒤 주장 안일웅(3년)도 0-2로 패배하며 총득점수에서 아쉽게 밀렸다.

정동진 서석중 교장은 “이번 대회에서 거둔 값진 은메달은 동계훈련부터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한 결과”라며 “다음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빛고을 가린이는 챔피언로 모여라”

KIA, 내달 3-5일 ‘시리즈 이벤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다음달 3-5일 한화 이글스와 홈경기를 ‘가린이 날 시리즈’로 치른다. KIA는 어린이 팬들을 시구자로 초청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을 증정하면서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계획이다.

3일 승리기원 시구는 1호 키즈클럽 회원 가입

자인 장하령 어린이가, 4일 시구는 102번째 어린이날을 기념해 102번째 키즈클럽 회원 가입자인 정하준 어린이가 각각 맡는다.

5일은 가린이 출신 보이그룹 ‘크래비티’의 멤버 민희와 우빈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다양한 체험 행사 또한 마련된다.

우선 3일과 4일에는 키즈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선수단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챔피언스 필드 투어를 진행한다.

4일은 응원단에게 치어리딩을 배우고 단상에서 직접 공연까지 하는 어린이 치어리딩 이벤트가 진행된다. 5일에는 그라운드 캐치볼 행사가 진행된다.

어린이 팬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념품도 증정된다. 4일에는 KBO에서 제작한 키링과 물티슈 각 2천개, 5일에는 해태제과 ‘홈런볼’ 4천개를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또한 3연전 동안 하랑이가 들어간 특별 티켓 5종이 무작위로 발견된다.

/주홍철 기자

PSG ‘연착륙’ 이강인, 프랑스 슈퍼컵이 리그양 우승

박지성·김민재와 어깨 나란히

손흥민(토트넘)에 이어 ‘차세대 간판’으로 꼽히는 이강인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맞은 첫 시즌부터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한국 축구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29일 2위 팀 AS 모나코가 올랭피크 리옹과 2023-24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3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3으로 패하면서 PSG의 우승이 확정됐다.

이로써 2018년 ‘17세 233일’의 나이로 발렌시아(스페인)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강인은 처음으로 리그 우승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이강인은 2018-2019시즌 발렌시아 소속으로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올 시즌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에서 두 차례 컵대회 우승만 경험한 바 있다.

한국 선수가 유럽 5대 빅 리그(잉글랜드, 독일, 스

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우승한 건 박지성(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 정우영(슈투트가르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이강인이 네 번째다. 박지성, 김민재와 비교하면 이강인이 가장 어린 나이에 빅리그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첫 우승 당시 박지성과 김민재는 28세였다. 이강인은 지금 이들보다 3살 어린 23세다.

이강인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뛴 2022-2023시즌 리그, 컵대회에서 6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올 시즌에는 4골 3어시스트를 기록, 공격포인트 총량이 소속 줄어든 모양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지도 아래, 고정된 포지션 없이 전방과 미드필더를 오가는 등 새 팀 적응에 집중한 여파다.

여러 선수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축구를 이

한국 축구선수 유럽 5대 빅리그 우승 기록

| | |
|--|--|
| | 박지성 26세 우승 2007/2008/2009/2011년 소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
| | 정우영 20세 우승 2019년 소속 바이에른 뮌헨 |
| | 김민재 26세 우승 2023년 소속 SSC 나폴리 |
| | 이강인 23세 우승 2024년 소속 파리 생제르맹 |

* 유럽 5대 빅리그: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사진: 윤동진 기자

식하려는 엔리케 감독은 다재다능한 이강인이 마음에 든다. 그는 최근 구단 채널을 통해 한 포지션만 소화하는 선수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강인은 원어, 중앙 미드필더, 최전방 공격수로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지난 28일 열린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뒤진 후반 42분 페널티킥으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올린 후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손흥민, PK로 리그 16호골

토트넘, ‘북런던 더비’ 아스널전 2대3·4위 경쟁 ‘빨간불’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패배에 짙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 28일 열린 아스널과의 2023-2024 EPL 35라운드 홈 경기를 마치고 구단 미디어를 통해 “정말 실망스럽다”면서 “후반전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이날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2-3으로 져 5위(승점 60)를 유지했다.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

피언스리그(UCL) 진출의 마지막 도전인 4위 애스턴 빌라(승점 67)와의 승점 차를 7에서 줄이지 못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선두 아스널에 전방에만 3골을 얻어맞으며 무너졌다.

후반 19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추격골이 나오고, 손흥민이 후반 42분 페널티킥으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으나 끝내 승점을 가져가지 못했다.

손흥민은 리그 3경기 골 침묵을 깨고 시즌 16호 골을 터뜨리기도 못했지만,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

/연합뉴스